

# 주민참여예산 회의록

(분과명 : IFEZ분과 )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 ○개회선언

장선자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다.

## ○성원보고

13명중 대면 7명 비대면 1명(김희경)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 ○사업설명

###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 사전질의 답변

사업비 8백만원은 포상금 6백만원, 운영 및 홍보비 2백만원 사용 예정

(이장규)이 사업의 금액이 너무 적다. 홍보와 상을 주더라도 효과가 있게 최우수상은 5백만원, 우수상은 3백만원 등 합해서 천만원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 증액을 반영했으면 한다.

->예산증액은 가능하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한 것이다. 위원님들이 정해주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장선자 위원장)글로벌 캠퍼스는 학자금 대출이 안 된다. 금액을 넓게 책정해서 학교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글로벌 캠퍼스는 국내법에 의해 장학금을 주지 않고 있다. 법률적 제한이 있다. 국내 대학과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등록금만으로 운영해야 해서 어려움은 있다. 평생교육조차도 외국계 학교는 지원이 안 된다. 개선하기 위해 중앙과 협의 중에 있다. 매년 신입생은 증가하고 있다. 최종 목표는 90%이상이 되면 확장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장선자 위원장)금액을 확정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건가?

->수용은 할 수 있다. 이걸 단순히 포상성격이라 부수적인 사업비는 책정이 된 건 없다. 아이디어까지 제공해주면 내년에는 그런 것도 반영되는 예산이 편성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어서 최소한의 금액만 책정했다.

(장선자 위원장)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장학금의 성격이 될 수 있는데 일반인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나?

-> 재학생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 일반인에게 했다면 선정이 어렵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다. 일반인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캠퍼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동의하여 반영으로 검토를 하였다. 상금을 늘리는 것은 감사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원진) 제안자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반영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위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공모전의 방법은 다양하다. 홍보를 더 확대하고 대상도 초,중,고등학생, 외국까지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 홍보가 단일 방향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양방향이다. 그런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p>-&gt;홍보비가 5억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홍보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는 비대면으로 많이 했다. 참신하게 제안된 건 3번 항목인데(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방안에 대한 포상 및 홍보시행) 사업비는 아직 편성이 안된 상태이다. 내년에 좋은 아이템이 나온다 하면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p> <p>(김원진)학생 숫자가 37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위원들은 상금에 대한 비용 증액을 말했는데 수상 부문에 대한 인원을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검토 부탁드립니다.</p> <p>-&gt;최소한의 금액만 반영을 했는데 적극 수용하겠다.</p> <p>(임미영)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시설을 인천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일단 들어가는 입구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그런 안내도 없었다. 안내 요원이나 행사 진행하는 업체에서만 안내하고 행사가 끝나면 땀했다. 관리자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시설은 최고인데 그것을 인천시민들이 알았으면 한다.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도 홍보사업의 추진 내역은 어떻게 되나?</p> <p>-&gt; 7월까지 시행된 부분을 설명드리면 공동입학설명회 14회, 언론사 홍보 7회, 디지털 홍보, 해외광고, ebs 교재 수능특강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 캠퍼스를 찾아오기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한다. 재단이 설립된 지 10주년인데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불편한 것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p> <p>(이정철)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포스터를 붙이던가 안내를 하고 그 다음 과정들도 있는데 비용이 2백만 원에 가능한가?</p> <p>-&gt;공모전 사업비로 3천~5천만원정도로 책정을 해준다면 실망스럽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p> <p>(이정철)홍보비 자체도 너무 적다.</p> <p>-&gt;재단이 4개 대학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재단과 대학의 소통창구는 많다. 자체적으로 홍보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에 홍보의 방법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더 많은 방법을 찾아 진행하겠다.</p> <p>(이정철)공모전에 대한 포상보다는 준비하는 단계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p> <p>(장선자 위원장) 심사해야 하는게 11건이다. 김희경 위원의 의견을 듣겠다.</p> <p>사업비를 늘리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나?</p> <p>-&gt;사업비 증액을 검토해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겠다.</p> <p>(장선자 위원장)지금부터는 미반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다.</p> <p><i>영종도 하늘도시 뒤편미스유치원 옆 베드민턴장에 대하여</i></p> <p>사전질의 답변</p> <p>(김진호)우레탄이 설치되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는 건지 추진 예정인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p> <p>-&gt;우레탄으로 되어 있던 것이 마루로 바뀌어 완료가 되었다는 말이다.</p> <p>(장선자 위원장)완료가 되었다면 논의할 게 없을 것 같다.</p> <p>제안자가 제안하기 전에 시행이 된 건가?</p> <p>-&gt;제안자가 봤을 때는 안되어 있었던 것 같다.</p>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 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p>(임미영)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하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위원들은 사업이 인천에서 추진되는 장소를 잘 모른다. 사전답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코로나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2차 회의때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부탁드린다.</p> <p>(장선자)추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달라. 사진 자료 요청이 있었기때문에 여쭙는다.</p> <p>(임미영)이번 사업에 대해 말한 건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이다.</p> <p>(장선자 위원장) 미반영으로 하겠다.</p> <p>위원들 동의하다.</p> <p><i>해양도시이미지 활성화</i></p> <p>사전질의 답변</p> <p>(박미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금을 어느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프로그램 운영도 궁금하다.</p> <p>-&gt;1년 생산량은 20톤정도 된다.</p> <p>-&gt; 5월부터 해설가가 진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p> <p>(박미순)중구청에 가면 가능한가?</p> <p>-&gt;영종사업단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p> <p>(김원진)사업명과 제안자의 제안 2가지가 매치가 되지 않아 헛갈린다. 고용창출과 관광체험 활성화인데 난해한 제안인 것 같다. 그렇더라고 부서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위원들의 역할인 것 같다. 편의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나? 관광활성화, 해양도시이미지 활성화라고 하니 편의시설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드린다.</p> <p>-&gt;시사이드파크내에 염전보존구역으로 해서 거기서 소금생산체험을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태이다. 기존 것을 보존해가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거리상으로 편의시설이 부족한 건 있다. 편의시설을 조금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것은 어렵지 않나 싶다.</p> <p>(장선자 위원장)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p> <p>-&gt;체험하시는 분들께 일정량을 드리고는 있다. 특성화해서 하면 좋지만 공원에 아무시설이나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고 공원시설로 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안되는 것을 반영해서 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다.</p> <p>(박미순)인천공항에서 먼가? 인천공항 환승객을 상대로 단시간 체험으로 할 수는 없나?</p> <p>-&gt;예약시스템 부분도 있고 관광활성화 부분은 타 과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지 않나 한다. 공항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인 것 같다.</p> <p>(김원진)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 하나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일정부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찾아오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도 과정이 복잡한가? 제공이 가능한가?</p> <p>-&gt;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다. 비닐팩에 드리는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문제가 없다 하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p>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 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p>(장선자 위원장)추진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손들어 달라.</p> <p>-&gt;8명중 5명이 찬성하여 반영으로 결정됨.</p> <p><i>영종대로 감응신호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i></p> <p>사전질의 답변</p> <p>(장선자 위원장)질문이 없으시면 찬반투표를 하겠다.</p> <p>-&gt;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 미반영이라 답했다.</p> <p>(장선자 위원장) 그럼 미반영으로 하겠다.</p> <p>위원들 동의하다.</p> <p><i>교량 경관조명 설치</i></p> <p>제안자는 지금보다 화려하게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이었음</p> <p>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임.</p> <p>(장선자 위원장)반영으로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건가?</p> <p>-&gt;노후 교체시 제안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이다.</p> <p>(이정철)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가 아니면 임의대로 하는 건가?</p> <p>-&gt;전구만 교체한다고 하면 심의 대상은 아니다.</p> <p>(김원진)심곡교라는 교량도 관광시설로도 볼 수 있다. 최근 트렌드가 조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선진국을 벤치마킹을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다면 좋겠다. 제안자는 다른 곳은 화려한데 이곳은 왜 밋밋한가 라는 의도에서 제안을 한 것 같다.</p> <p>(이장구)교체가 끝난 건지 하실 건지 분명하게 말해 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p> <p>교량이 언제 건설이 된건가?</p> <p>-&gt;2012년에 준공이 되었다.</p> <p>(이장규)페인트 칠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다. 노후화되어서 다른 보수도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p> <p>(장선자 위원장)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려하게 특화되고 빛으로 인해서 교량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p> <p>(이정철)교량에 사용되는 지정된 칼라가 있나?</p> <p>-&gt; 연수구 교량은 인천의 10색을 표현한 거고 정해진 것은 없다.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p> <p>(이정철)모자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칼라를 다양하게 하는 곳도 있다. 미관상으로 봐서는 칼라가 있는 것이 깨끗하고 좋아 보인다.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p> <p>(장선자 위원장) 추진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달라.</p> <p>-&gt;8명중 7명이 손을 들어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다.</p> <p><i>쓰레기 자동집하장 가동</i></p> <p>사전질의 답변</p>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 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p>(김원진)위원으로서뿐 아니라 주민으로서 관심 있게 봤는데 사업액수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것 같다. 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청장의 답변도 궁금하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동여부나 시설여부를 조사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재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다.</p> <p>-&gt;기존에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영종주민을 대상으로 견학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주민은 빠른 시행을 요청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p> <p>(장선자 위원장)쓰레기 집하장 문제는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이 시발점이 되고 그렇게 출발해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p> <p>추진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달라</p> <p>-&gt;8명 중 0명으로 미반영사업으로 결정되었다.</p> <p><i>청라국제도시 내 스타트업 창업공간 마련</i></p> <p>사전질의 답변</p> <p>(김원진)9월쯤에 용역사업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가부의 보고서가 아니라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고서인가?</p> <p>-&gt;송도에 있는 스타트업파크의 발전방향에 대한 거고 청라에 관한 건 발전방향을 위주로 작성되는 보고서이다.</p> <p>(김원진)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청라와 영종같은 경우는 설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건가?</p> <p>-&gt; 그렇다.</p> <p>(김원진)도화동에는 청년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형식으로라도 청라쪽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p> <p>-&gt;검토는 하고 있으나 단시간에 가능하지 않아 미반영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했다.</p> <p>(장선자 위원장)조그맣게라도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송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라나 영종에도 군소의 개념이라도 반영을 해주었으면 한다.</p> <p>-&gt;제안자와 통화를 했는데 제안자도 내년 반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것이다.</p> <p>(이장규)젊은 사람에게 창업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이 내용으로 중장기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검토완료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p> <p>-&gt;추진으로 가면 2023년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중장기라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년에 당장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반영으로 했다.</p> <p>(임미영)제안자는 업무를 알고 있는 분이다. 인천스타트업파크를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스타트업과 추진되는 스타트업과는 다른 것 같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검토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p> <p>(이장규)국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p> <p>지금 용역준 것의 일부분인 것 같다. 중장기로 추진해도 좋을 것 같다.</p>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 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p>(장선자 위원장)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p> <p>-&gt;내년 예산으로 반영이다 보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p> <p>(이장규)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들어가 있지 않나?</p> <p>-&gt;충도는 하고 있다.</p> <p>(장선자 위원장)수용가능하면 좋을 것 같다.</p> <p>추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분은 손들어 달라.</p> <p>-&gt;7명중 2명의 찬성으로 미반영 사업으로 결정되었다.</p> <p>공원에 쓰레기통 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p> <p>사전질의 답변</p> <p>(박미순)인력을 쓰는 것보다 쓰레기를 넣을 봉투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p> <p>-&gt;무상으로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p> <p>(박미순)종량제가 아니더라도 친환경 봉투라도 가능하지 않나?</p> <p>(장선자 위원장)제안자는 쓰레기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수정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질의를 드린 거다.</p> <p>-&gt;청소관리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존사업 범위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p> <p>(김원진)청라호수공원이 규모가 크다. 계절에 따라 이용객의 차이가 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것이다. 재검토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었으면 한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p> <p>-&gt;청라호수공원에 화장실이 5개가 있다. 화장실이 사용 빈도수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거기도 양호하다. 이용자들이 감수해주었으면 한다. 쓰레기 감량에 관한 노력, 탄소 줄이기 같은 노력을 생각해 주시고 이젠 도로변이 아니라 공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p> <p>(임미여)플로깅을 하다 보면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일부러 가져와서 버리는 사람은 없다. 주위의 소매점이나 판매점 등 가게 앞에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인력을 충원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p> <p>그러나 편리성으로 본다면 감안을 해주었으면 한다.</p> <p>(이승민)쓰레기통이 없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데 홍보가 안 되서 잘 안되고 있다. 안내판이나 홍보를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 쓰레기봉투를 캠페인을 통해서 지급하여 인식개선을 것들이면 좋을 것 같다.</p> <p>(장선자 위원장)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현수막이나 CCTV 설치 등을 설치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한다.</p> <p>-&gt;CCTV는 30군데 가까이 설치되어 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공원에는 개별적 쓰레기통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p> <p>(김원진)제안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제안자가 변경된 내용을 이해할지 의문이 든다. 변형시켜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동의한다.</p> <p>(장선자 위원장)추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달라.</p> <p>-&gt;7명중 4명의 동의로 반영으로 결정되었다.</p>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 인천 캐널웨이 정화

#### 사전질의 답변

(장선자 위원장)질문이 없으면 추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여부를 진행하겠다. 동의하면 손들어 달라.

->7명중 0명으로 미반영으로 결정되었다.

### 영종국제도시 캐릭터 개발

#### 사전질의 답변

(김원진)제안자는 영종이라는 공간명을 썼다. 행정구역별로 보면 별개이다. IFEZ에 캐릭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중구청의 캐릭터와 별개로 IFEZ에서 관리하는 청라, 송도, 영종에 대한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김진호)유명관광지를 보면 행정구역안의 작은 공간에도 별도로 캐릭터를 두는 경우도 있다.

->인천광역시 내의 지역이라고 보여 진다. 영종의 캐릭터를 말씀하셔서 중구를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캐릭터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것이 활용성의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 제안한 곳이 정크아트라는 업체에서 제안을 준 것 같은데 국제도시라는 것은 감안하고 있고 검토도 해 봤지만 캐릭터를 새로 만들기보다는 인천시의 캐릭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캐릭터가 많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성이 있어 보인다. 캐릭터가 창작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천차만별이다.

(김원진)인천은 면적이 큰 지역이다. 또 지역적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드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장선자 위원장)질문이 없으면 추진사업으로의 전환을 거수로 투표하겠다.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달라.

->7명중 0명으로 미반영으로 결정되었다.

### 센트럴파크의 숲과 정원 확대

#### 사전질의 답변

(김원진)센트럴파크는 정비가 잘되어 있고 가장 유명한 공원이다. 사슴농장이라는 볼거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제안자가 냄새가 심하다 등의 의견을 주신 것은 싫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공간축소의 과정은 복잡한가?

->2012년에 4마리로 시작되어 11마리가 있다. 공간을 축소하기에는 맞지 않다. 개체수를 늘릴 생각은 없다. 사슴이 자연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소하게 될 것 같다. 숲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숲을 늘리는 수준은 자연스럽게 밝게 될 것이다.

(장선자 위원장)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떤가?



->부족하지는 않다.

(장선자 위원장)토끼에 관한 기사도 읽었다. 제안자는 냄새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개선 방법은 없나?

->청소를 자주하고 소독 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박미순)청소를 자주한다고 하지만 여름이라 한계가 있을 것 같다. 톱밥은 사용하고 있나? 냄새제거에 효과적이다.

->톱밥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지는 확인하겠다.

일 시	2022. 7. 26.			장 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13	8(준1)	5	김정현, 김종화, 김현재, 송명순, 최단비		
안 건	제안사업 1차 심사					
<p>(장선자 위원장)추진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달라.</p> <p>-&gt;7명중 1명의 동의로 미반영사업으로 결정되었다.</p> <p>※ 부서 요청</p> <p>해양도시이미지 활성화사업이 아까 반영된대로 하면 제안자의 의도와는 달라진다. 그래도 괜찮을지 논의해 달라.</p> <p>-&gt;제안자에게 설명을 하고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 <p>○폐회 선언</p> <p>장선자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p> <p>※추가 회의</p> <p>반영 5건</p> <p>(장선자 위원장)1차 회의는 30억 내외로 선정하게 된다.</p> <p>반영 5건에 대해서 심사표 서식을 드리니까 7/27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p> <p>8월말에는 예산정책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p>						
사업번호	사업명					반영여부
1405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반영
1016	영종도 하늘도시 뽀나미스유치원 옆 배드민턴장에 대하여					미반영
1241-1	해양도시이미지 활성화					반영
1019	영종대로 감응신호 및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미반영
1545	교량 경관조명 설치					반영
1098	쓰레기 자동집하장 가동					미반영
1332	청라국제도시 내 스타트업 창업공간 마련					미반영
1615	공원에 쓰레기통 좀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반영
1726	인천 캐널웨이 정화					미반영
1680	영종국제도시 캐릭터 개발					미반영
1763	센트럴파크 숲과 정원 확대					미반영
서명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장선자		박미순		김종화	